

- 주요 뉴스: 영국 트러스 총리, 감세안 추가 철회하고 재무장관 경질
    -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, 지나치게 빠른 금리인상에 따른 위험 경고
    - 블룸버그 서베이, 향후 12개월 내 미국 경기침체 확률 60%
    - ECB 라카르트 총재,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이 금융안정을 위협
  - 국제금융시장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, '08년 이후 처음으로 4.0% 돌파  
주가 하락[-2.4%], 달러화 강세[+0.8%], 금리 상승[+8bp]
   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양호한 은행 실적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지속 전망으로 하락  
유로 Stoxx600지수는 전일 미국증시 급등과 저가매수 등으로 상승
   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긴축 강도 심화 전망 등으로 강세 재개  
엔화 가치는 1.0% 하락하여 '98년 이후 최저치 기록
   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미시건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등으로 4.0% 돌파  
독일은 영국 채권시장 불안 지속과 ECB 양적긴축 논의 전망 등으로 상승
- ※ 원/달러 1M NDF환율(1441.3원, +14.8원) 0.9% 상승, 한국 CDS 상승

|    |      | 10/14일  | 10/13일  | 전일대비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10/14일  | 10/13일  | 전일대비   |
|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주가 | 미국   | 3,583.1 | 3,669.9 | -2.37% | 국채<br>금리<br>10y | 미국    | 4.02%   | 3.94%   | 8bp    |
|    | 유럽   | 391.31  | 389.15  | 0.56%  |                 | 독일    | 2.35%   | 2.29%   | 6bp    |
|    | 중국   | 3,072.0 | 3,016.4 | 1.84%  |                 | 영국    | 4.34%   | 4.20%   | 14bp   |
|    | 일본   | 27,091  | 26,237  | 3.25%  | CDS<br>5y       | 한국    | 62bp    | 61bp    | 1bp    |
|    | 한국   | 2,212.6 | 2,162.9 | 2.30%  |                 | 중국    | 115bp   | 113bp   | 2bp    |
| 환율 | 달러지수 | 113.30  | 112.45  | 0.83%  | 위험<br>지표        | EMBI+ | -       | 481     | -      |
|    | 유로화  | 0.9722  | 0.9776  | -0.55% |                 | VIX   | 32.02   | 31.94   | 0.25%  |
|    | 엔화   | 148.67  | 147.12  | -1.05% | 원자재             | WTI유  | 85.61   | 89.11   | -3.93% |
|    | 위안화  | 7.1925  | 7.1695  | -0.32% |                 | 구리    | 342.4   | 344.1   | -0.49% |
|    | 원화   | 1,428.5 | 1,431.3 | 0.20%  |                 | 금     | 1,644.5 | 1,666.4 | -1.31% |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## 금일의 포커스

### ■ 트러스 영국 총리, 감세안을 추가 철회하고 콰텡 재무장관 경질

- 9.23일 영국 정부의 미니 예산안 발표 후 국채시장을 중심으로 불안이 심화되자 트러스 총리는 10.3일 고소득자 감세안을 철회한데 이어,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시장 혼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법인세 인상안을 유지하겠다고 발표
- 트러스 총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콰텡 재무장관을 경질했으며, 보건장관 등을 역임했던 제러미 헌트 의원을 새 재무장관으로 임명
- 영국 언론들은 정책 유턴과 재무장관 경질로 트러스 총리의 입지가 더욱 불안해 졌고 보수당 내에서도 불만이 높아지면서 총리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
- 기자회견 후 파운드화 가치는 하락하고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. Citigroup은 폭넓은 정책 수정이 없는 이번 조치로는 재정우려를 완화 시키지 못할 것이며 시장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평가

## 글로벌 동향 및 이슈

### ■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, 지나치게 빠른 금리인상에 따른 위험을 경고

- 에스더 조지 총재는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최종 정책금리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, 너무 빠른 금리인상이 경제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
- 샌프란시스코 연은 데일리 총재는 연준이 금리인상을 지속하는 것을 지지하며 정책금리를 4.5%-5.0% 수준까지 인상 후 상당기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예상

### ■ 미국 9월 소매판매, 전월 수준을 유지했으나 소비자 구매력은 저하

- 9월 소매판매가 전월비 0.0%로 예상치인 0.2%를 하회. WSJ은 인플레이션 조정이 없는 지표임을 감안할 때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은 계속 저하되고 있으며, 필수적인 것 이외의 지출은 줄이기 시작했다고 평가

### ■ 블룸버그 서베이, 향후 12개월 내 미국의 경기침체 확률 60%로 증가

- 2개월 내 경기침체 확률이 전월 50%에서 더 높아졌으며, 서베이 참가자들은 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이 가계소비와 노동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

## ■ ECB 라가르드 총재,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이 금융안정을 위협

- 라가르드 총재는 경기둔화와 고물가, 금융여건 긴축으로 가계와 기업들의 부채 상환 능력이 악화되고 있으나 금융시장은 아직 낙관적이라고 우려
- 통화정책이 정상화 되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경제회복을 위협하지 않고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첨언

## ■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, ECB는 중립 수준 이상으로 정책금리 인상 필요

- 카지미르 총재는 물가 통제를 위해 경기확장을 제약하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, 10월 0.75%p 인상 후 추가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
- 한편, 블룸버그는 ECB 내에서 매파 위원들을 중심으로 내년 초 양적긴축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

## ■ 일본 재무상, 엔화의 투기적 쓸림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

-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스즈키 재무상은 지난달 외환시장개입에 대해 미국의 이해를 얻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, 많은 나라들이 글로벌 통화긴축이 경제와 환율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주시하고 대처할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언급

## ■ 싱가포르통화청(MAS), 환율정책을 통해 올해 4번째 통화긴축 단행

- MAS는 명목실효환율의 정책밴드 중간값 상향을 결정하면서, 이번 조치가 수입 물가 인플레이션을 더욱 낮추고 국내의 비용 압력을 억제할 것이라고 설명

## ■ IMF, 중국은 내년 하반기까지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

- 스티븐 바넷 IMF 중국주재 대표는 중국정부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3.2%까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, 중국은 추가 경기부양 여력이 있는 만큼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

## ■ 유로존, 에너지 수입 증가로 8월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인 509억유로 기록

### 주요 경제지표

## ■ 주요 경제 이벤트(10/17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0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, 중국 3분기 GDP 및 9월 산업생산 등

## 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48, E-mail [dhkwon@kcif.or.kr](mailto:dhkwon@kcif.or.kr)